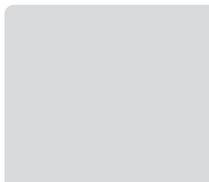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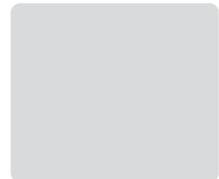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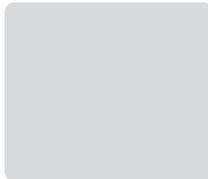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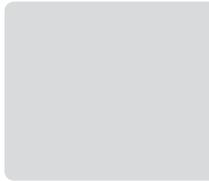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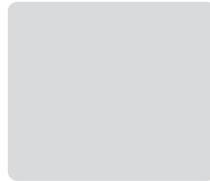




구민과 함께하는

맑고 푸른 구로만들기



구로해동리

구민과 함께하는

맑고 푸른 구로만들기

GPO 구로구

## :: 인사말

21세기 환경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지방정부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나가는 자율정책이면서, 지방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참여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경정책이 시민본위로 이루어지는 민본정책이어야 하며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등 각각의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구로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주민, NGO, 환경전문가, 기업,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여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의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자문과 대안제시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녹색구로 만들어 가고자 녹색구로환경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환경구로구연합회,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환경사랑모임 등 환경단체들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를 하고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안양천  
도심지의 크고 작은 공원에서 만끽하는 가족들과의 휴식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도시  
세대를 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정감이 넘치는 사회  
이 모든 것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구로행동 21」은 환경을 보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구로에서 살아갈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민, 기업, 구가 실천해야할 구체적인 행동목표와 지표, 그리고 행동계획을 우리구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한 「구로행동 21」을 통해 구로를 맑고 푸르게 가꾸어 가는데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2007년 12월  
구로구청장

## 구로환경선언 ::

서울의 서남단에 위치한 구로구는 아홉 노인이 장수를 누리며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의 유서 깊은 지역으로 산과 하천의 자연적 조화와 함께 인간적 향취가 스며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또한 과거 굴뚝산업 위주의 구로공단으로 인식되었던 우리 구는 바야흐로 친환경 첨단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하였으며 복지, 문화, 교육 등에서도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 전 국민으로부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넘어 미래시대 역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쾌적한 삶은 물론 경제발전도 불가능한 시대이다

이에 우리는 온전한 환경보전과 더불어 새롭고 행복한 미래 건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 구로'를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 0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02 우리는 가정과 기업과 정부를 경영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03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04 우리는 재활용에 앞장서 쓰레기 줄이기와 녹색소비문화를 적극 전개한다.
- 05 우리는 국내·외 다른 도시와 협력하여 범지구적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CONTENTS

# 구민과 함께하는 맑고 푸른 구로만들기

### ●● 제1부 구로행동21의 작성

- 08 구로행동21의 작성 필요성
- 09 구로행동21의 작성방향
- 10 구로행동21에서 그려본 구로의 모습과 행동목표

### ●● 제2부 구로행동21의 내용

- 14 대기·교통 | 깨끗한 공기, 걷고 싶은 구로
- 26 물 | 맑은 물, 생명이 살아 있는 구로
- 32 소비 | 건전한 소비로 자원이 순환되는 구로
- 38 기후변화 | 친환경에너지 사용의 중심 구로
- 44 생태도시 |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구로
- 50 건강·복지 |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구로
- 58 환경교육 | 환경교육으로 미래가 푸른 구로

### ●● 제3부 구로행동21의 실천전략

- 64 구로행동21 실천전략
- 65 구로행동21 평가

### ●● 부 록

- 68 구로행동21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





## 제1부

# 구로행동21의 작성

- + 구로행동21의 작성 필요성
- + 구로행동21의 작성방향
- + 구로행동21에서 그려본 구로의 모습과 행동목표

# 「구로행동21」의 작성 필요성

**구로구와 녹색구로환경위원회**는 2001년 4월 2일 5개 분야 19개 행동목표로 구성된 구로의제21(자연과 하나되는 구로환경21)을 선포하고 구로의제21실천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실천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그 결과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나 여건이 변화되어 필요 없는 계획이 생겼다. 따라서 기존의 구로의제21의 형식을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구로의제21**이 구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면 구로의제21의 비전과 행동 목표 등이 구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구로의제21을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이후, 의제 작성 중심이던 지방의제21이 의제 실천 중심의 지방행동21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05년 12월 서울의제21을 서울행동21로 수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제21의 지방행동21 체제로의 전환과 지방의제21 제도화라는 국내 외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구에서도 2007년 6월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서 구로의제21의 수정을 계획하였고 2007년 12월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정하여 실천중심의 행동21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구로행동21」의 작성방향

구로행동21의 작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폭 수정하기보다는 구정과 구민들의 일상 관심사를 반영하여 부분 수정한다.

**둘째**, 서울행동21 체제를 바탕으로 구로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구로구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에 반영해 구정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셋째**, 구로의제21 보고서에서 정한 행동분야, 행동목표, 지표, 실태, 장·중·단기 개선 목표와 행동계획의 틀은 계속 유지한다.

**넷째**, 최근의 지방의제21 추진동향을 반영하여 행동분야를 환경매체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의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따라서 행동분야는 대기·교통, 물, 소비, 기후변화, 생태도시, 건강·복지, 환경교육의 7개 분야로 한다.



# 「구로행동리」에서 그려본 구로의 모습과 행동목표

## 대기 · 교통

깨끗한 공기, 걷고 싶은 구로

- 맑고 깨끗한 공기보전에 힘쓴다.
-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 소음·악취를 줄여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교통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간다.

## 소 비

건강한 소비로 자원이 순환되는 구로

- 생활쓰레기를 줄인다.
-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한다.
-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한다.

## 생태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구로

- 구로를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만든다.
- 주택가 주변에 소공원을 늘려간다.
-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 생물종이 다양화 되도록 한다.

구

7개 분야  
27개 행

10  
비전과  
동목표

## 물

### 맑은 물, 생명이 살아 있는 구로

-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늘 물이 흐르게 한다.
- 물 절약을 생활화한다.
- 지하수와 토양을 보호한다.

## 기후변화

### 친환경에너지 사용의 중심 구로

-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선다.
-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한다.
-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 건강·복지

###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구로

-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 흡연율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든다.
-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
- U-Healthcare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한다.
- 노후에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구로를 만든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린다.

## 환경교육

### 환경교육으로 미래가 푸른 구로

-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늘려간다.





## 제2부

# 구로행동리의 내용

- + 대기·교통 | 깨끗한 공기, 걷고 싶은 구로
- + 물 | 맑은 물, 생명이 살아 있는 구로
- + 소비 | 건전한 소비로 자원이 순환되는 구로
- + 기후변화 | 친환경에너지 사용의 중심 구로
- + 생태도시 |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구로
- + 건강·복지 |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구로
- + 환경교육 | 환경교육으로 미래가 푸른 구로

# 1 대기 · 교통

“깨끗한 공기, 걷고 싶은 구로”

- 1-1 맑고 깨끗한 공기보전에 힘쓴다.
- 1-2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 1-3 소음·악취를 줄여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1-4 교통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 1-5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간다.



## ⇒ 구로의 대기·교통 문제는...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75%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오존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져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주거생활공간, 지하생활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다.
- 철도 및 항공기 소음과 도로변의 교통소음 그리고 건설공사장 등의 소음과 진동은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며, 생활주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역시 주민 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있다.
-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 노상 적치물 등으로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차공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맑고 깨끗한 공기 보전에 힘쓴다.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운행제한 및 자동차 정밀검사 등을 수검하여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구민이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 및 악취를 관리한다.
- 구민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며, 노약자와 장애인의 안전·편리를 우선하는 생명존중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 1-1 맑은 공기 보전에 노력한다



## ●● 실 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포함한 준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1980년대까지는 서울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공해공장의 지방이전 및 첨단 IT 벤처산업단지로 변모하여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도는 감소되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고층건물의 신축,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 등이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개선목표

서울시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환경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구민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를 개선한다.

구분	서울환경기준	2006	구로환경 개선목표	2009	2015	2020
이산화질소 (ppm/년)	0.04	0.035	0.024	0.032	0.027	0.024
오존 (ppm/8시간)	0.06	0.015	0.010	0.013	0.011	0.010
아황산가스 (ppm/년)	0.01	0.004	0.003	0.004	0.003	0.003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취사 및 난방연료는 LNG나 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한다.
-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
- 생활주변의 청소를 자주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한다.
- 실내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은 환경마크 상품을 이용한다.
- 친환경 건축마감재와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이용한다.
- 각종 공사 시에는 물을 자주 뿌린다.



### 기 업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책임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당 필요한 환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하거나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한다.
-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한다.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노후시설은 개선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터와 나대지에 꽃이나 나무를 심는다.
- 빌딩·사업장 주변 녹화에 힘쓰고 물청소를 자주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행 정

- 도로 물청소 구역을 꾸준히 확대하여 도로먼지를 저감한다.
- 공사장 등 먼지발생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시스템 체제를 가동하여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보고, 실내 공기질 관리교육, 지도점검 협조 등의 의무에 대한 안내를 한다.
- 먼지다량발생사업장을 특별관리 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등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한다.
- 이면도로 등을 주민과 함께 청소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1-2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를 줄인다



### ●● 실 태

서울 대기오염 원인의 75%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을 줄일 수 있다. 2006년도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85만대로 먼지발생원 중 도로나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7.4%로 가장 높다.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구로구는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계 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자동차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오염도( $\mu\text{g}/\text{m}^3 \cdot \text{년}$ )는 65(2006년 평균)로 서울시 전체 평균 60보다 높다.

### ●● 개선목표

미세먼지 농도( $\mu\text{g}/\text{m}^3 \cdot \text{년}$ )를 2009년에는 48, 2015년 이후에는 46이하로 낮춘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미세먼지( $\mu\text{g}/\text{m}^3 \cdot \text{년}$ )	65	48	46	46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운행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 자동차는 항상 잘 정비된 상태를 유지한다.
- 공회전을 삼가는 등 올바른 운행습관을 갖는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적기에 받는다.
-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동참한다.

### 기 업

- 차량 구입시 저공해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 통근버스 운행, 출·퇴근 시차제 등을 운영한다.
- 차량 정비·정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운수업체에서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구비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해본다.

### 행 정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한다.
- 노후 자동차와 매연다량 배출차량의 조기폐차와 단속을 강화한다.
-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 배출가스 과다 발산 차량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확대한다.

## 1-3 소음·악취를 줄여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 실 태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구는 지하철 1·2호선, 경부, 경인선의 철도와 4차선 이상의 도로(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계 그리고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특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인근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확성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운수공단을 비롯하여 도장시설, 도금시설, 인쇄소 등의 사업장과 생활쓰레기 중간수거 거점 등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 ●● 개선목표

주거지역 소음도를 매년 줄여나가며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주거지역 소음도dB(A)	50	49	47	45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자동차, 이륜차 등의 배기관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며 규정속도를 지킨다.
- 정기적인 차량 정비로 소음을 줄이며, 주택가에서는 경적사용을 줄인다.
- 이동행상의 확성기 사용 자제 등 이웃에 피해되는 소음발생 행위를 자제한다.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없애는 등 생활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공해 발생원 발견시 신속히 신고한다.
- 음식물 잔재물, 악취나는 물질을 배수구 등에 버리지 않는다.



### 기 업

- 공사장에서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한다.
- 방음시설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하며 이른 아침과 야간공사는 자제한다.
- 도로 포장시 소음 흡수용 자재를 사용한다.
- 악취발생 공정을 개선하고 사업장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 행 정

- 공사장에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을 유도한다.
- 소음·진동, 악취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소음이 심한 지역을 조사하여 방음벽을 확대·설치한다.
- 철도연변에 수림대를 조성한다.
- 소음민원 발생요인이 되는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주요도로에 소음측정망을 확충한다.

## 1-4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 ●● 실 태

구로의 교통문화는 그동안 조금씩 수준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2006년 구로구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299건을 조사한 결과 난폭운전(754건), 신호위반(215건), 안전거리 미확보(135), 중앙선 침범(41), 보행자 보호 불이행(22), 기타(97건)으로 나타나 안전운행과 신호준수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 ●● 개선목표

교통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건수를 줄여 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교통사고 건수(건)	1,299	1,040	720	43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운전할 때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생활화한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반드시 지키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한다.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보도 위 주차와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는다.
-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휴대폰 사용 에티켓을 지킨다.

### 기 업

- 운수관련업계는 종사원의 근무태도 평가시에 운행실적보다 안전운전과 법규준수를 중요한 항목으로 삼는다.
-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불법주차 안하기, 승용차 이용 자제하기, 보도 위 이륜차 주행 안하기와 같은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한다.
-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후원한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한다

### 행 정

- 정지선 준수, 횡단보도 주변 및 보도 위 불법주차 안하기에 관한 시민홍보를 확대 강화한다.
-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한다.
- 경찰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과속, 정체시 교차로 진입, 경음기 사용, 불법주차 등에 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 구청에서는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강화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교통문화 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다.

# 1-5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간다



## ●● 실 태

2006년도 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인도의 보행편의성 만족도 지수는 48.4점으로 나타났다. 우리구의 보행환경은 개선할 문제가 많고, 구민의 보행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인도는 차도보다 좁은데다 잘 정비되지 않았고 각종 시설물과 간판, 상판, 주차차량 등에 잠식되어 있으며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차도와 구분된 보행공간이 없는 곳도 있다. 또한 횡단보도가 부족하여 지하도나 육교를 오르내리거나 먼길을 돌아서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보행이 편안하지 않고 심지어 사고 위험에 노출된 거리는 문화가 창조되고 향유되는 도시의 매력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며, 세계인에게 기억될 도시의 인상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 개선목표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질서한 이면도로 등을 정비하여 보행장애 및 적치물이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보행장애 및 적치물 없는 거리(km)	0	10	30	5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동네의 보행환경에 관심을 갖고 살피며 이웃과 함께 가꾸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보도에 장애물이나 노상적치물을 내놓지 않는다.
- 주택가 이면도로나 건축 후퇴선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기 업

- 각종 공사시 보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상점 앞 보도에 간판이나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 보도에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는다.
- 건물 주변은 꽃나무 식재나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보행환경과 도시문화를 배려한다.



### 행 정

-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광장 등을 확대해 나간다.
- 인도를 잠식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공공시설물, 불법 적치물과 노점, 차량통행과 주차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방지시설을 보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횡단보도 주변 보도의 턱을 없애 노약자, 장애인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각종 공사시 보행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 2 물

“맑은 물, 생명이 살아있는 구로”

2-1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늘 물이 흐르게 한다.

2-2 물 절약을 생활화한다.

2-3 지하수와 토양을 보호한다.



## ⇒ 구로의 물 문제는...

- 상류지역의 환경 기초시설 미비, 하수관거 불량, 비점오염원\*과 월류수\*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수질개선의 한계가 있다.
- 하천은 수질뿐만 아니라 유량도 부족한 실정이라서 건천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 하천에는 콘크리트 제방이 설치되고, 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친수공간으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 1인당 물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방치된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어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그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하천으로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하천 유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 물 절약 및 물 순환을 극대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원인을 사전에 예방한다.

\*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강우시에 도로, 논, 밭, 골프장 등으로부터 직접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 부하량.

\* 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 CSO) : 강우시에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되어 방류되는 양.

## 2-1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늘 물이 흐르게 한다

### ●● 실 태

1990년대 안양천 유역 수질은 일부 상류 구간을 제외하고는 BOD 100ppm 이상되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하천이었다. 하지만 1999년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고척교 밑을 기준으로 2002년 BOD 15.6ppm이던 수질이 2003년 11.3ppm, 2004년 10.8ppm, 2005년 9.7ppm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놀이가 가능한 수질등급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 ●● 개선목표

안양천 고척교 밑을 기준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2009년 5ppm, 2015년 4ppm, 2020년 3ppm으로 한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BOD(mg/l)	7	5	4	3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세제 사용량을 점차 줄인다.
- 집안에서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을 정해 가족이 함께 실천한다.
- 하천을 오염시키는 세차, 취사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하천이나 둔치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 하천 시설물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



#### 기 업

- 매년 폐수 줄이기 운동의 목표치를 정하여 실천한다.
- 자체 배출기준을 법적기준 이하로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지 않는다.
- 1사1하천 보전 운동을 전개한다



#### 행 정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대책을 수립한다.
-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강화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 정기적으로 하천수질 및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도로나 주차장 포장시 투수포장재를 사용한다.

## 2-2 물 절약을 생활화한다

### ●● 실 태

우리구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며 1인당 1일 급수사용량은 2002년 284ℓ, 2003년 279ℓ, 2006년 271ℓ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OECD 국가인 영국 153ℓ, 프랑스 137ℓ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 ●● 개선목표

물절약 시민운동 등을 통해 1인당 1일 급수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2020년에 176ℓ에 이르게 한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1인당 1일 급수사용량(ℓ)	271	250	200	176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세수나 양치질할 때, 그릇이나 음식재료를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 쓰고 난 깨끗한 물은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한다.
  -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버리도록 노력한다.
  - 절수형 수도설비를 사용한다.
  - 빗물을 받아 화분, 정원수 등에 사용한다.
- 
**기 업**
  -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산공정을 도입한다.
  - 오·폐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도입한다.
  - 직원들에게 절수의 필요성과 절수방법을 수시로 교육한다.
  - 우수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한다.
- 
**행 정**
  -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홍보한다.
  - 절수기기의 사용,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건물의 절약형 급수장치 및 중수도 보급에 솔선수범한다.
  - 중수도시설, 우수저장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 노후 옥내 배관의 교체를 지도한다.

## 2-3 지하수와 토양을 보호한다

### ●● 실 태

2006년 기준으로 우리구에는 371개의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 사용 중에 있다. 지하수법 제정 이전의 실패공이나 방치·은닉된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최후의 수자원으로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구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주유소 25개소, 산업시설 4개소, 운수시설 4개소를 포함하여 총 37개소가 있다.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인 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평소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 ●● 개선목표

- 지하수 오염방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방치된 폐공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한다.
- 지속적인 정기·수시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앞장선다.
-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사용하지 않거나 은닉된 지하수 관정을 알거나 발견시에는 구청에 신고한다.
- 유류 등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별도로 분리 보관한다.



#### 기 업

-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는다.
- 지하수 개발 실패시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 유해물질 배출 가능 제품에는 사용 및 폐기방법 등 안내문을 표시한다.
- 오염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체는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한다.
- 주유소 등 지하 유류 저장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행 정

- 지하수 자원 및 토양보전의 중요성을 주민이 인식하도록 홍보한다.
-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복구토록 한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노후된 하수시설의 정비에 대한 세부년차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거 매설시 정밀시공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
- 방치·은닉된 폐공 찾기에 노력하여 발견된 폐공은 즉시 조치한다.
- 토양오염 발생시를 대비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3 소비

“건전한 소비로 자원이 순환되는 구로”

3-1 생활쓰레기를 줄인다.

3-2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

3-3 지속가능한 소비를 생활화한다.

3-4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한다.



## ⇒ 구로의 소비 문제는...

- 생활폐기물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크게 줄었으나, 2001년부터 약간씩 늘어나고 있다.
- 남은 음식물이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1/5을 차지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주변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며 처리비용도 많이 든다.
-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삶의 편리성, 감성만 추구하는 소비형태와 광고량 증가가 과소비를 조장한다.

## ⇒ 이런 원칙으로 푼다

- 구로구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권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올바른 쓰레기 배출습관을 생활화하여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인다.
- 기업은 제품의 내구년한을 늘리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높이는 생산방식을 도입한다.
- 소비자는 과소비를 줄이고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책임성 있는 소비생활을 한다.
- 소비자는 윤리경영과 환경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의 녹색상품을 구매한다.

## 3-1 쓰레기를 줄인다

### ●● 실 태

2006년 기준 우리구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05kg으로 OECD가 권장하는 적정수준의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인 0.3kg의 세 배가 넘는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일회용품, 포장폐기물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개선목표

일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여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kg)	1.05	1.0	0.9	0.8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과대포장 상품을 사지 않는다.
- 시장갈 때는 장바구니 이용을 생활화하여 비닐봉투 사용을 줄인다.
- 알뜰매장을 적극 이용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산다.
- 재활용품과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한다.



#### 기 업

- 폐기된 제품이나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고 회수체계가 제대로 자리잡게 한다.
- 포장은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다.
-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 한다.
- 공정개선을 통해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 행 정

- 대형·대량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나 처리체계를 마련한다.
-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폐형광등 수거함 확충 등 재활용품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 3-2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 ●● 실 태

2006년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 평균 87톤을 위탁 처리하여, 1인당 1일 기준으로 0.2kg을 배출하고 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 ●● 개선목표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09년 0.195kg, 2015년 0.19kg, 2020년 0.18kg으로 줄여 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kg)	0.2	0.195	0.19	0.18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음식물 재료는 필요한 만큼만 사고 먹을 만큼만 조리한다.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한다.
  - 좋은 식단체를 실시하는 음식점을 이용한다.
  -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로 배출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자연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한다.
  - 소형 찬그릇을 사용하여 조금씩 덜어먹는 습관을 갖는다.
- 
**기 업**
  - 음식점에서는 반찬량과 가지수 줄이기, 남은 음식물 싸주기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집단급식소에서는 자율배식을 실시하여 먹을 만큼만 먹게한다.
  - 잉여식품은 푸드뱅크로 보내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건조, 발효 등으로 감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행 정**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 발효휴 보급 등 가정 음식물쓰레기를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출량 줄이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좋은 식단체, 푸드뱅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다.
  -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 등 자원화 방안을 강구한다.

## 3-3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한다

### ●● 실 태

지속가능한 소비란 환경을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이며 윤리적인 소비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최소한의 물질소비로 최대한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경제적인 소비행위라 말하는데 재화나 용역의 사용가치를 소유가치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최근 웰빙 상품, 명품 소비 바람, 상품주기의 단기화, 과소비 등이 우리의 의식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 ●● 개선목표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빌려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구매하기보다는 가급적 빌려서 사용한다.
-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구매한다.
- 지속가능한 소비활동은 주부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로 인식하고 남녀간에 공정하게 역할을 분담한다.
-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한다.



#### 기 업

- 각 지역에 생활용품 수리 센터를 많이 만든다.
-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 행 정

- 지속가능한 소비를 인식시키고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에코디자인, 재활용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3-4 친환경상품 및 서비스를 적극 구매한다

### ●● 실태

친환경상품이란 생산·소비·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의 역제는 물론 자원의 절약에 기여한다. 하지만 일반상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구입하기 어려워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상품 구매는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선목표

구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관련조례를 제정하고 구로구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2006년 85%)을 2009년까지 88%, 2015년까지 90% 수준으로 확대한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친환경 상품 구매비율(%)	85	88	90	90

### ●● 우리의 할 일

- 
**구민**
  - 친환경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다.
  - 녹색구매 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친환경상품 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 상품의 친환경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기업의 생산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노력한다.
- 
**기업**
  - 친환경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노력한다.
  - 생산물품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한다.
  - 구매자로서 기업의 역할로 원부자재뿐 아니라 기업에서 소요되는 물품과 서비스도 친환경적인 것을 구매·사용한다.
  - 청정기술·에코디자인(친환경 설계)을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 친환경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사용·보급에 앞장선다.
  - 구민,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구매 교육을 강화한다.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한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기후변화

## “친환경에너지 사용의 중심 구로”

4-1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선다.

4-2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4-3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한다.

4-4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 ⇒ 구로의 기후변화 문제는...

-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 과도한 에너지 사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불편한 대중교통이 자가용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
-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 ⇒ 이런 원칙으로 풀다

-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늘려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 가정과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및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춘다.
- 구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한다.

## 4-1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앞장선다

### ●● 실 태

지난 100년간 전지구의 평균 온도가 0.7℃ 상승한 반면, 서울은 지난 30년 동안 그 2배인 1.5℃가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근년에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IEA, 03년 기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특히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공해·무공해 차량의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가 절실하다.

### ●● 개선목표

서울시 친환경선언에서 표방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2010년까지 2%, 2020년까지 10%로 늘려가도록 한다는 목표가 우리구에서도 달성 될 수 있도록 한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 구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둔다.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 기후변화 및 친환경에너지와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기 업

-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에너지 이용량을 점차 늘려나간다.
- 기업소유 자동차를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로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한다.



#### 행 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의 구입, 운행비용을 매년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 청소대행업체 실적평가에 CNG 차량 및 저공해차량 보유비율을 반영한다.
-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4-2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 실 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직결되는 에너지 소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송부문과 감축잠재량이 많은 전기사용, 난방 등 가정과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개선목표

200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이용을 2010년까지 5%, 2020년까지 15% 줄여나간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겨울:18~20℃, 여름:26~28℃)를 유지한다.
-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한다.
- 대기전력 절약을 위해 멀티탭 스위치를 사용한다.
- 쓰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 낭비를 방지한다.
- 다림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절약 습관을 길러준다.



#### 기 업

-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힘쓴다.
- 상가 대형간판을 LED 방식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한다.
- 에너지 절약형 사무자동화기기 구입,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한다.
- 기업의 활동단계별 에너지부하를 낮추는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업무차량을 구입할 때 연료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자동차를 구매한다.



#### 행 정

-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에너지 절약 목표를 수립한다.
- 학생, 기업,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도시시설물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시설로 꾸준히 교체한다.
- 고효율 에너지 사무기기로 바꾸어 나가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 사이버환경가계부 등 에너지 절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 4-3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한다

### ●● 실 태

자전거는 기후변화 방지와 교통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이동수단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및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자동차 도로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전거 도로로 할당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시민과 기업은 일상화된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더욱 높여야 한다.

### ●● 개선목표

구로구의 자전거도로를 2006년 8.1km, 2009년 19.4km, 2015년 40km, 2020년에는 60km로 늘린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자전거도로(km)	8.1	19.4	40	6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모든 가족이 주 1회 이상 자전거 이용을 즐기도록 한다.
  - 자전거 타기 및 온라인 동호회 활동으로 자동차 이용 의존도를 대폭 줄인다.
  - 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나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 자전거 교실 등에 적극 참여한다.
- 
**기 업**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실이나 탈의실을 만든다.
  - 사업장내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전용도로를 설치한다.
  - 자전거 이용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직장내 자전거 타기 활동을 지원한다.
- 
**행 정**
  - 도로를 건설할 때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자전거 도로 개설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자전거 도로를 매년 늘려간다.
  -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과 서비스센터를 늘린다.
  -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전거 도로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리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전거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린다.
  - 자전거 교실 등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킨다.

## 4-4 승용차요일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 ●● 실 태

서울시 차량은 280만대로 이미 포화상태이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219만대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가 도로의 72%차지함에도 수송은 27%만 분담한다. 또한 나홀로 운전차량이 무려 승용차의 80%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76%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휘발유 1ℓ를 소비할 때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2.3kg이나 생겨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주일에 단 하루,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 개선목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을 2006년 10%, 2009년 50%, 2015년 80%, 2020년 100%로 높여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10	50	80	10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한다.
  -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 이동으로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하도록 계획한다.
  - 혼잡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혼잡한 날이나 시간대를 피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 
**기 업**
  - 방문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안내체계를 갖춘다.
  - 무상의 주차공간 배정, 주차비 보조, 주차요금지원 등 차량이용을 장려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대중교통이용을 장려하는 지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 
**행 정**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간다.
  - 장거리 승용차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환승주차장이나 복합환승시설을 보완한다.
  - 버스 수요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며 버스 이용안내 정보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 각종 회의 및 행사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 5 생태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 구로”

- 5-1 구로를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만든다.
- 5-2 주택가 주변에 소공원을 늘려간다.
- 5-3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 생물종이 다양화 되도록 한다.



## ⇒ 구로의 생태 문제는...

- 과거 구로공단 배후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 자연녹지는 비교적 풍부하나 시가지 공원녹지는 빈약하고 지역편차가 크며 1인당 시설공원 면적이 서울시 최하위로 생활권 녹지 부족이 심각하다.
- 녹지의 단절현상이 심하다.

## ⇒ 이런 원칙으로 본다

- 그린파킹, 골목길 및 건물 녹화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녹지를 확충한다.
- 가로수 및 가로띠녹지를 조성하며, 하천변 테마녹도 조성 및 교통섬에 대한 경관녹지를 개선한다.
- 생물서식 기능 회복을 위해 녹지네트워크를 설정하고 녹지보전 및 훼손된 녹지를 복원한다.

## 5-1 구로를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만든다

### ●● 실 태

우리구의 자연녹지는 비교적 풍부한 반면, 시가지 공원녹지는 비교적 빈약한 상황으로 이마저도 지역적 편차가 크다.

새로운 환경에 기초한 디지털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활용과 부족한 녹지기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도심속의 그린토피아 형성이 라는 비전을 갖고 구로를 생태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개선목표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뽕뽕산, 교도소 이적지, 안양천 등을 연결하는 구로 녹색벨트를 구축하고 1인당 전체 녹지면적을 2007년 18.85㎡에서 2020년 21.54㎡로 늘려간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토지를 이용할 때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서울시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결정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대지내 투수토양포장 비율을 높인다.
- 옥상, 인공지반, 벽면 등을 적극 녹화한다.
- 작은 규모의 정원과 연못 등 생태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 기 업

- 각종 개발을 할 때 주변 지역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건물옥상 및 벽면녹화에 적극 동참한다.
- 토지 이용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행 정

- 도시계획에 생태도시 이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꾸준히 정비한다.
- 구로구 각종 위원회에 환경, 생태분야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도록 한다.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 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건물 옥상, 담장, 자투리땅 등의 공간에 녹지를 조성한다.
- 재개발시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광역개발을 통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한다.

## 5-2 주택가 주변에 소공원을 늘려나간다

### ●● 실 태

구로의 공원은 전체 면적의 15.7%에 이르고 1인당 공원면적은 2006년 12월 현재 6.99㎡이지만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시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등의 생활권 공원 면적은 1.47㎡에 불과하다.

이제는 공원의 총량적 증대는 물론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에 초점을 두고 주택가 주변에 소공원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 ●● 개선목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늘려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1.47	1.50	1.55	2.0

### ●● 우리의 할 일

- 
**주민**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관심을 가진다.
  - 동네 꽃길 가꾸기 등 주택이나 단지, 동네를 생태적으로 가꾸는 운동을 전개한다.
  - 공원가꾸기,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 등의 운동에 참여한다.
- 
**기업**
  - 건물의 옥상과 벽면 녹화를 통해 녹지를 늘려 나간다.
  - 녹지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 1사 1산, 1사 1공원 운동과 같은 기업차원의 나무심기와 가꾸기 사업을 한다.
  - 건물 신축시 기준 이상의 녹지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행정**
  - 구민과 기업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집 앞 5분 거리 이내에 공원을 집중 조성한다.
  - 녹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택, 공장, 철도변 등의 녹화를 추진한다.
  - 개발제한구역내 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5-3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고 생물종이 다양화 되도록 한다

### ●● 실 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부지에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불법 시설물들이 다수 설치되어 산림훼손은 물론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속한 정비를 통해 야생동식물이 되돌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 ●● 개선목표

산림내 배드민턴장 등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간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함으로써 주변식생을 보호한다.
  - 불법 시설물들은 자진 철거한다.
  - 작은산 생태교육이나 생태기행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녹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함부로 잡거나 해치지 않는다.
  -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 기 업**
- 외래식물 제거, 나무심기 등 생활주변 작은 산 살리기 사업에 동참한다.
  - 작은산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에 직장 단위로 참여를 한다.
  - 전담관리지역을 정하여 산림보전활동을 지속실시한다.



- 행 정**
- 숲속 여행 프로그램 등 자연학습의 기회를 가지며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 도로개통 등으로 야생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된 곳에 생태이동통로를 개설한다.
  - 개발제한구역내 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공원녹지별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 6 건강 · 복지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구로”

- 6-1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 6-2 흡연율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든다.
- 6-3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
- 6-4 U-Healthcare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한다.
- 6-5 노후에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구로를 만든다.
- 6-6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린다.



## ⇒ 구로의 건강·복지 문제는...

- 과음, 흡연, 비만, 운동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구민의 건강지수가 악화되고 있다.
- 보건의료체계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다.
- 예방중심의 관리체계와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 웰빙 열풍으로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유전자변형식품, 잔류농약 초과 농산물, 색소 등을 첨가한 인스턴트 식품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불량 먹거리 속에 방치되어 있다.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노인도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시설을 갖춘 노인시설이 부족하다.
- 보행이 힘든 장애인, 노인, 유모차 이용자 등이 목적지 까지 갈 수 있는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 바깥 나들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 이런 원칙으로 풀다

-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의로서비스로 소외계층, 외국인 등의 보건관리에 노력한다.
- 보건의료체계를 의약서비스와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개인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지역환경의 건강성 회복 중심으로 바꾼다.
- 과제 선정에서 장애인, 노약자, 여성, 어린이, 빈곤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
-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에 참여한다.
-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노인은 편리한 보살핌을 받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인다.
- 보행이 힘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자가 어디든지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권을 확보한다.

# 6-1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 ●● 실 태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과체중이 늘고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여성과 청소년층에서 정상체중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체중을 조절하여 건강문제도 심각하다. 2005년 실시한 1차 및 2차 구로구 건강실태조사 결과 우리구는 성인남자비만율이 23.4%, 성인여자 비만율이 8.7%에 달하고 있다.

## ●● 개선목표

성인남자 비만율을 2005년 23.4%에서 2009년 18.0%, 2015년 이후에는 10.0%를 유지한다. 성인여자 비만율을 2005년 8.7%에서 6.0%, 2015년 이후에는 2.0%를 유지한다.

구분	2005	2009	2015	2020
성인남자 비만율(%)	23.4	18.0	10.0	10.0
성인여자 비만율(%)	8.7	6.0	2.0	2.0

\*비만율 : BMI 25이상(과체중+비만)

\*BMI : 현재 체중/키(m)의 제곱(•20 미만: 저체중, •20~24: 정상 체중, •25~30: 과체중(경도비만), •30 이상: 비만)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자신의 체중에 관심을 갖고 자주 측정한다.
  -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 짜게 먹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 술, 담배, 카페인,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등을 절제한다.
  -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 1일 30분, 주 3회 이상 운동을 실시한다.



- 기 업**
- 단체 급식을 할 때 직원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직원을 위한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한다.
  - 다양한 저지방 식품을 개발한다.
  - 술, 담배, 카페인,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등을 절제한다.



- 행 정**
- 알맞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걷기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비만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비만 예방 교육용 소책자를 만들어 보급한다.
  - 구민 체육 시설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6-2 흡연율을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든다

### ●● 실태

2005년 우리구에서 실시한 1차 및 2차 구보건강실태조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남자 흡연율은 57.14%, 성인여자는 3.63%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성인남자 음주율은 79.2%, 성인여자 음주율은 39.6%로 나타났다. 흡연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과도한 음주는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 사고의 주요원인이며 응급실 방문환자의 30%는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 개선목표

성인들의 흡연율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며, 주 2회 이상 술을 마신다고 응답하는 비율을 줄여나간다.

구분		2005		2009		2015		2020	
성인남자 흡연율(%)	성인여자 흡연율(%)	57.1	3.6	45.0	1.5	30.0	0.5	30.0	0.5
주2회 이상 성인남자 음주비율(%)	주2회 이상 성인여자 음주비율(%)	79.2	39.6	70.0	34.0	60.0	30.0	60.0	30.0

### ●● 우리의 할 일



#### 구민

-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키고 길거리 흡연을 삼간다.
- 금연클리닉 등 금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건전한 음주문화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 술은 천천히 마시며 술을 마시는 횟수를 줄인다.
-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
-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내고,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않는다.



#### 기업

- 작업장에서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킨다.
- 금연교육 및 절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술 없는 회식 및 대안문화를 개발하고 절주 분위기를 조성한다.



#### 행정

- 금연 캠페인을 활발하게 하고 금연거리를 조성한다.
- 성인 및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 중독자 치료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한다.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한다.
-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과 성인 대상 절주 교육을 전개한다.
-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술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알코올 의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다.

## 6-3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

### :: 실 태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생활양식의 국제화, 고급화와 간편화 등 사회적 요인의 변화로 외식과 집단급식 등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관리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7년 현재 우리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4,087개 중 모범음식점은 258개소로 약6.3%에 해당된다.

### :: 개선목표

2007년 모범음식점 비율 6.3%를 2009년 7%, 2015년 8.%, 2020년에는 10% 이상으로 늘린다.

구분	2007	2009	2015	2020
모범음식점 비율(%)	6.3	7	8.5	1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한다.
- 먹기전에 유통기한을 꼭 확인한다.
- 조리된 식품은 즉시 먹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한다.
- 수입식품, 유전자 조작식품 대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한다.
- 손을 깨끗이 자주 씻는다.



#### 기 업

- 유통기한과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 허위,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재료를 사용한다.
- 식품과 식품소재의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한다.
- 부정,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한다.
- 식품업 종사자들이 위생관념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및 조리기구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행 정

-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 구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체제를 구축한다.
- 자율적 기준 이행과 안전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업체나 음식점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한다.
-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한다.
- 식품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한다.
- 구민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홍보한다.

## 6-4 U-Healthcare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한다

### ●● 실 태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치료하더라도 완치가 어려운 질병들을 말하는데, 2005년 실시한 구로구 건강실태조사 설문결과 우리구 질병 유병률 중 고혈압이 11.85%, 당뇨병이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수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 ●● 개선목표

디지털 구로에 걸 맞는 첨단 IT기술을 주민건강관리에 접목한 U-Healthcare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분	2007	2009	2015	2020
U-Healthcare 운영 (측정, 관리)	3,000	4,000	4,000	4,00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U-Healthcare를 매년 2회 이상 받아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한다.
  - 의사의 지도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에 노력한다.
  -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 관리를 실천한다.
- 
**기 업**
  - 지역보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동참한다.
  -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 전문 진료를 요하는 환자 발생시 연계하게 관리한다.
- 
**행 정**
  - 서비스 대상계층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고령층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 산·학·연·관이 연계된 의료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의료서비스 체계를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보건 사업 위주로 전환한다.

## 6-5 노후에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구로를 만든다

### ●● 실 태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7.2%인 30,658명으로 노화로 생긴 만성질환과 치매 등 건강상의 문제, 노인 일자리와 사회참여문제, 노인가족의 부양부담과 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 개선목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확보하여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한다.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
- 노인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여러 시민모임에 참여를 유도한다.
- 노후준비 교육에 참여하고 노후계획을 세운다.
- 노인은 스스로 우리골목청소, 교통골목지킴이 등의 활동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솔선한다.



#### 기 업

- 노인의 법정고용비율 5%를 지켜나간다
- 직원들에게 노인부양을 위한 휴가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은퇴자들에 대한 교육과 은퇴에 따른 사회적응기간을 지원한다.
- 치매노인 가족에게 부양비를 보조한다.



#### 행 정

- 치매노인의 실태조사와 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한다.
- 공공보호대상자를 위한 중증치매노인 실비 시설을 최대한 설치한다.
- 청소년,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 통합의 문화를 만든다.
-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노인전용 공간을 확보하거나 10%이상 노인전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정보소외 노인에게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한다.

## 6-6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늘린다

### ●● 실 태

2006년 현재 우리구에는 14,01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적인 지체·시각장애인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 개선목표

2006년 95.4%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을 2009년에는 98%, 2015년 이후에는 100%로 확대한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	95.4	98	100	100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한다.
  - 일반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다.
  - 장애인의 이동 등에 불편을 주는 곳을 찾아서 신고한다.
-  **기 업**
  - 장애인 고용을 늘려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 건물 신축 및 개축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고려하여 설치한다.
-  **행 정**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통한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7 환경교육

## “환경교육으로 미래가 푸른 구로”

7-1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7-2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늘려간다.



## ⇒ 구로의 환경교육 문제는...

- 환경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환경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할 때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현실이다.
-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학습 분야가 하천생태교육과 숲 체험 등에 치중되어 다양한 환경지식을 습득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 전문적인 환경교육 지도자와 일반 구민들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가 부족하여,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환경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 ⇒ 이런 원칙으로 본다

- 다양한 계층의 환경교육 참여와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한다.
-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고장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험환경교육 기회를 늘려간다.
- 지역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 7-1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 ●● 실 태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환경교육, 환경교실, 하천생태교육,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교육 참여는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환경교육을 통한 국민의 환경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발굴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 개선목표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환경교육, 하천생태교육, 기후변화 대응 교육 등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 나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교육 프로그램수(개)	4	5	6	7

## ●● 우리의 할 일

- 
**구 민**
  - 자녀와 함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 환경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생활에서 실천한다.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 부모들이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한다.
- 
**기 업**
  -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 구청 및 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사업장을 환경교육 장소로 개방하고 인근 구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직원 환경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 
**행 정**
  - 학교, 기업, 환경단체와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한다.
  - 민간단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 학생, 기업, 일반 주민 등 대상별로 적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 환경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7-2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늘려간다

### ●● 실태

주부환경구로구연합회,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환경사랑모임 등의 환경단체가 구성되어 작은 산 살리기, 하천 가꾸기,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 환경보전 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주부, 직장인 등이 참여하는 작은 모임들이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환경보전운동이 다각화되면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 개선목표

작은 산 살리기, 하천 가꾸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사업 등 환경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보전 활동 수를 늘려간다.

구분	2006	2009	2015	2020
환경보전활동 수	5	6	7	8

### ●● 우리의 할 일



#### 구민

-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한다.
-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 환경오염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의식을 가진다.
- 구와 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보전 행사에 적극 동참한다.



#### 기업

- 환경보전 캠페인, 1사1산1하천 가꾸기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사보, 생산제품 등에 환경보전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홍보한다.
- 사내 환경경영 등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발표한다.



#### 행정

- 의제21 실천단 및 환경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한다.
-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구민, 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한다.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알려 참여의 폭을 넓힌다.





## 제3부

# 구로행동21의 실천전략과 평가

- + 「구로행동21」 실천전략
- + 「구로행동21」 평가

# 「구로행동21」의 실천전략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와 실천과제를 담은 구로행동21을 새로이 작성하고 실천을 통해 구민과 함께 맑고 푸른 구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구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구민의 실천적인 활동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구로행동21의 진정한 의미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홍보의 강화

시민단체와 기업정보를 교환하며 지방행동21 실천에 대한 선진 모범사례와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지도자를 양성하고, 구민·기업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후변화 방지, 하천 살리기, 작은산 살리기 환경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한다.

## 「구로행동21」 실천단 활성화

특정 조직 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단이 구로행동21을 실천하는 핵심 시민조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 구민의 참여제고와 협력체계 구축

구로구는 구로행동21의 실천주체인 시민단체가 구로행동21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시민단체는 구로행동21 실천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구로행동21의 구체적인 이행프로그램과 실천을 통한 결과물 및 추진 성과는 시민과 행정에 공개한다.

# 「구로행동21」 평가

구로행동21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매년 실천과제의 추진사항과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며 주요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분야별, 행동목표별로 설정한 개선목표의 양적·질적 달성도
- ⇒ 구민, 기업, 공무원 등 행동주체의 참여도
- ⇒ 「구로행동21」의 인지도 및 만족도

실천과제의 추진사항과 목표의 달성도는 매년 평가하는 단기평가와 3년 단위의 중기평가, 10년 단위의 장기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특히 중·단기 평가는 단계별로 설정한 개선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상황변화에 따라 목표와 실천과제를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평가 보완시에 추진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추진주체로서 구민은 구청과 환경관련 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참여폭을 넓히고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경영과 더불어 구민과 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구는 구민과 기업의 해야 할 일을 분야별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평가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의 정립과 실천과제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수정보완 후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구민과 기업에 대한 홍보강화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부 록

# 구로행동리

##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

# 「구로행동21」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

## ⇒ 위원장

김찬곤(구로구 부구청장)

## ⇒ 환경행정분과(10명)

신관우(분과위원장, 동양공업전문대학 응용화학과 교수)

김명조(구로구의회 의원)

이인철(구로초등학교 교장)

박태해(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윤정섭(주 | 청룡환경 대표이사)

양득순(목감천 사랑봉사단장)

김복순(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총무)

이충옥(개봉1동 구립어린이집 원장)

허금숙(한마을어린이집 원장)

최동욱(구로구 환경경제국장)

## ⇒ 구민참여분과(9명)

최왕곤(분과위원장, 구로시민센터 지도위원)

김관수(구로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김명순(덕의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

김경숙(고척1동 청소년아동협의회 회원)

양미경(고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

서영희(고척지대 의용소방대 총무)

장현희(온수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

임현숙(오류2동 민족통일구로구 협의회 총무)

김복자(구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

### ⇒ 구로의제21 실천단 (10명)

- 송치경(구로의제21실천단장)
- 손미라(신도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정남희(구로남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부회장)
- 이인자(미래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정안임(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회원)
- 이한숙(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회원)
- 현희면(주부환경구로구연합회 구로3동 분회장)
- 윤옥진(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회원)
- 최미화(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모임 총무)
- 최길희(주부환경구로구연합회 회원)

### ⇒ 기 타

- 전경애(주부환경구로구연합회 회장)
- 김동옥(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 오영미(환경사랑모임 회장)

구민과 함께하는  
맑고 푸른 구로만들기

---

- 발 행 인 | 구로구청장
  - 발 행 일 | 2007년 12월 15일
  - 발행부서 | 구로구 환경과(전화 860-2875 팩스 860-2640)
  - 홈페이지 | [www.guro.go.kr](http://www.guro.go.kr)
  - 인쇄제작 | 경원DPS(2285-1361)
-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습니다.

〈비매품〉

구로행동리

구민과 함께하는

맞고 푸른 구로 만들기

 구로구